

“군포교 중심지로”... 장병과 ‘소통’ 강조

경남 함안 '39사단 안국사' 낙성법회 봉행

39사단 창원서 이전하며 함안에 새롭게 문열어 군장병 600여명 참석해 지역 수호 및 호국 도량 발원 명상 및 다도 강좌 등 계획



경남 함안 육군 39사단 군법당 안국사가 5월 29일 봉행한 낙성법회에서 호국불교 정신을 되살려 군포교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경남 함안 육군 39사단 군법당 안국사(군법사 신영)는 5월 29일 법당 앞마당서 현판식을 봉행했다.

안국사는 창원에 있던 육군 39사단이 함안으로 이전하며 새롭게 불사된 군법당이다. 지난 2015년 12월 31일 송구영신 법회로 첫 공식 행사를 연 후, 매월 정기 법회로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신영 군법사는 불자들과 '소통'을 강조, 장병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낙성 법회는 타종을 시작으로 현판식, 통도사 반야암 회주 지안 스님의 법문, 문병호 39사단장의 인사말 및 축사, 창원 구룡사 우담바라협창단의 축하 등 순

으로 이어졌다. 군인 장병들은 우렁찬 함성과 박수로 현판식을 축하했다.

지안 스님은 “도량은 수행하는 장소의 의미한다. 또 수행은 자신의 마음이 곧 부처임을 깨닫고, 업으로 잃었던 본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오늘 환희와 기쁨이 넘쳐나는 이 도량서 수행을 통해 자신의 본래 마음을 알고, 새로운 힘을 얻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문병호 39사단장은 “안국사는 1955년 우리 대대가 창원에 자리했을 때부터 함께 해왔다”며 “함안에 새롭게 문을 연 이곳이 호국도량의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이라 믿는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살아 숨 쉬는 자비로운 쉼터가 되주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아울러 이제한 안국사 금강회장은 발원론 낭독을 통해 장병들의 군생활을 축

원했다. 이 금강회장은 “군인으로서 삶이 견디기 힘든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부처님께서 다정하신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가피를 내려 주시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앞으로 안국사는 일요법회, 수계법회, 초하루 및 관음재일 등 법회를 정기적으로 봉행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법당을 만들기 위해 제등행렬 동참 및 봉축 법요식, 신행단체 명상 강좌, 선지식 초청 법회, 다도 문화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다.

신영 법사는 “호국 불교의 정신을 이어 안보를 담당하고 지역 수호를 위한 노력을 이어 갈 것”이라며 “또한 장병들이 불심을 통해 분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 또한 각 사암연합회 스님들과 ‘협약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낙성법회에는 지안 스님, 함안 사암연합회 회장 원명 스님, 문병호 39사단장과 국방부 김강영 법사, 39사단 장병 등 사부대중 600여명이 동참했다.

하성미 기자

부처님 품에서 ‘부부의 연’ 맺다

함안 용정사, 불교식 전통 혼례로 ‘화제’



경남 함안 용정사는 5월 29일 경내 대웅전에서 신랑 이광환과 신부 김재은을 위한 전통 혼례를 거행했다.

사찰서 전통 혼례가 진행돼 화제다. 경남 함안 용정사(주지 동준)는 5월 29일 경내서 전통 혼례를 거행했다. 결혼식은 삼귀의로 시작해 고분문 및 헌화, 혼인서약 등 전통 불교의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새롭게 부부로 인연을 맺은 신랑 이광환과 신부 김재은 씨는 사찰 전통 혼례에 매우 만족했다며, 새 출발을 부처님 가피로 시작하게 돼 기쁘다고 전했다. 신랑 이광환 씨는 “타 종교는

이런 특별한 결혼식을 자주 시도하는데, 불교는 좋은 아이를 갖고도 대중화되지 못해 안타까웠다”면서 “그래서 처음 불교 전통 혼례를 제안 받았을 때 흔쾌히 수락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주지 동준 스님은 “불교의 전통 혼례 의식에 현대 의식을 가미해 결혼식을 거행했다”며 “새롭게 출발하는 이들이 부처님의 가피로 더욱 행복하길 바란다”고 축원했다.

하성미 기자

“생명의 희망을 전하는 음악회”

생명나눔 부산본부, 환자 쾌유 위한 작은 음악회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는 6월 20일 오후 6시 30분 좋은강안병원 1층 로비서 ‘제10회 환자 쾌유를 위한 작은 음악회’를 개최한다. 행사는 스님들이 직접 환우를 방문하고 위로하는 시간으로, 1부 사랑의 다과(병실 방문), 2부 작은 음악회가 마련된다.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는 “힘겹게 투병생활 하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따뜻한 이웃사랑을 전함으로써 희망을 주고 싶었다”며 “환자들이 병마를 이겨낼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한다”고 독려했다.

하성미 기자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는 6월 20일 좋은강안병원 1층서 ‘제10회 작은 음악회’를 연다. 사진은 지난해 자료사진

“자비행 실천하며 어르신 장수 기원”

대광명사, 5월 28일 ‘장수 사진’ 촬영 나눔 행사

부산 해운대 전법도량 대광명사(주지 목종)가 5월 28일 지역 어르신 30여명을 초대해 ‘장수사진’ 촬영을 진행했고, 어르신들의 건강과 장수를 발원했다.

장수사진 촬영은 대광명사 봉사단 ‘사무량심’과 거사림회, 그리고 시민연합봉사회가 후원했다. 거사림회는 행사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이동수단을 제공했으며, ‘사무량심’은 공양을 마련했다.

특히 ‘사무량심’은 매달 도시락 봉사 및 물품지원 봉사 등을 실시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그 가운데 만난 독거노인 및 소외 계층의 요청으로 이번 장수사진촬영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주지 목종 스님은 “이곳까지 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며 “오늘 뿐 아니라 자주 찾아 주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에 어르신들은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박종후 사무량심 회장은 “어기 와주신 모든 어르신들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



부산 해운대 전법도량 대광명사가 5월 28일 대광명사 법당에서 ‘장수사진’ 촬영을 진행했고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과 장수를 발원했다.

시길 바란다”며 “해운대는 걸모습은 화려하나 쪽방촌에는 여전히 소외된 이웃이 많다. 그들을 위해 부처님의 자비를 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할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목종 스님은 봉사자들의 수고를 격려하기 위해 구선에 시민연합봉사회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목종 스님은 “각자의 삶도 그리 녹록치 않을 텐데, 그 가운데서도 대광명사 신도님들

이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며 “언제나 쉬지 않고 나눔을 행한 그 공덕은 본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우리 사회에 부처님 자비심이 가득하게 할 것이다”고 격려했다.

한편 이날 촬영한 장수사진은 액자에 담아 ‘사무량심’ 도시락 배달 봉사 때 각 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하성미 기자

태고종 혜인정사, 어르신 섬김 건강잔치

5월 28일 경북 고령군 우곡면서

대구 혜인정사(주지 진송)는 5월 28일 경북 고령군 우곡면을 찾아 ‘어르신 섬김 건강잔치’를 열었다. 우곡면 경로 당 앞마당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혜인정사 진송 스님, 마이산 탐사 주지 진성 스님, 권오중 우곡면장, 박동현 동장, 박상옥 노인회장을 비롯한 어르신 3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트로트 가수 남경이, 유빈 등 초대가수들의 공연과 더불어 마이산 탐사 실상밴드의 색소폰 연주 등 다채로운 무대로 꾸며졌다. 특히 진송 스님은 직접 색소폰 연주에 나서 많은 박수를 받았다.

진송 스님은 “이웃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어르신들을 위해 만발 공양을 하는 것이 훌륭한 불공양이라 생각한다”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만수무강을 기원한다. 앞으로도 어르신들 위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열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사)나누우리 국내구호이사물 맡고 있는 진송 스님은 동지팔곡 나눔, 라면나눔, 연탄나눔, 반찬나눔 교도소 교정활동, 갑룡장학회 후원 등 활발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갑보디아의 학교 식수 정수대 사업 외에 베트남 라이프이한을 위한 사업도 계획 중이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5월 28일 대구 혜인정사가 경북 고령군 우곡면에서 개최한 ‘어르신 섬김 건강잔치’서 마이산 탐사 ‘실상밴드’가 색소폰 연주를 하고 있다.

금강저 108염주

천수경·반야심경·관음정근·지장정근을 할 때 이제부터는 108백팔금강저염주를 돌리십시오!

일심으로 한알한알 돌릴 때마다 시방법계 부처님 법구의 무량한 힘으로 수행과 참회를 빛내 청정심이 되고, 전생부터 이생까지 알게 모르게 지은 업장소멸이 속히되어 망상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불법인연에 따라 해탈의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 사찰에서 고통이 심한 신도님에게 천도재가 어려울 때, 발원기동용으로 사용하시면 소원성취가 속히 이루어짐으로 스님들께서 방도방편용으로 많이 사용하시며, 사찰불사용으로 적절합니다. 스님들께는 20% 할인해 드립니다.

■ 백팔금강저염주를 소지하실 때 부처님 법단에 7일에서 21일간 올려놓으신 후 사용하시면 효험이 더욱 큼니다.

부처님의 제 1 법구인 금강저를 정심모아 108염주로 만들었습니다!

본래 금강저 1개만 소지하여도 모든 만사의 화근을 물리치고, 악귀잡귀를 퇴치하여 삼재화, 삼재액을 퇴방한다 하였는데, 금반 금강저는 세계 최초로 금니 금강저108개를 모아 일개의 염주로 제작하여 상서로운 불멸력을 강화시킨 장엄법구로서 큰 원력을 지닌 법구입니다. 사찰의 불법과 스님의 신심원력을 한층 높여 주어 수행하는 불자라면 누구라도 소지하면 알게 모르게 지은 전생업장소멸이 되어 참선수행정진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 성황리 사찰봉사를 기원할때
- 자손득남 발원할 때
- 환자가 속쾌차하기를 바랄때
- 시험에 합격을 기원할때
- 사찰신도가 신심이 흩어져 줄어들었을때
- 새 사업을 개업할때
- 금전 재산이 모이질 않고 점점 줄어들때
- 집터나 가게터가 산란하여 장사가 안되고 재수가 없을때
- 가정이 평안하고 부부가 화목하기를 바랄때
- 망상과 마구니로 인해 수행정진이 잘 안될때

입금계좌 : 농협 302-4233-7099-41 / 전화 : 010-4233-7099